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나는 메시아 II

(요 4:25-29)

이종윤 원로목사

3.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족보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가?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으니 족보는 중요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허탄한 족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누구누구의 아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단의 족보와 솔로몬의 족보가 갈라져 나갔다면 예수님이 양쪽에서 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후계는 왕족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후계는 왕가가 계승되는 것이고, 나단의 후계는 법통인데 특히 선지자 계통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면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고문적으로 일한 선지자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23을 보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고 했는데 이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16에는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가 아니라 요셉을 피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요셉과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1을 보면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통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변형시켜 발음한 것이 ‘여고냐’입니다. 이 사람은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애굽의 ‘바르스’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하스’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 형인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약덕한 왕으로 사치와 방탕에 빠졌던지 예레미야 선지가 그를 가리켜 회개하라고 하니가 전언문 두루마리 책을화로 불 속에 던져 불사르고 선지자를 무시한 왕입니다. 역대상 3:16 이하를 보면 이 여고냐의 잡혀 간 일곱 아들 중 유다를 다스린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아들이 다 왕이 못 된 것입

니다. 유다의 왕통은 여고냐에서 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에서 나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왕통을 못 이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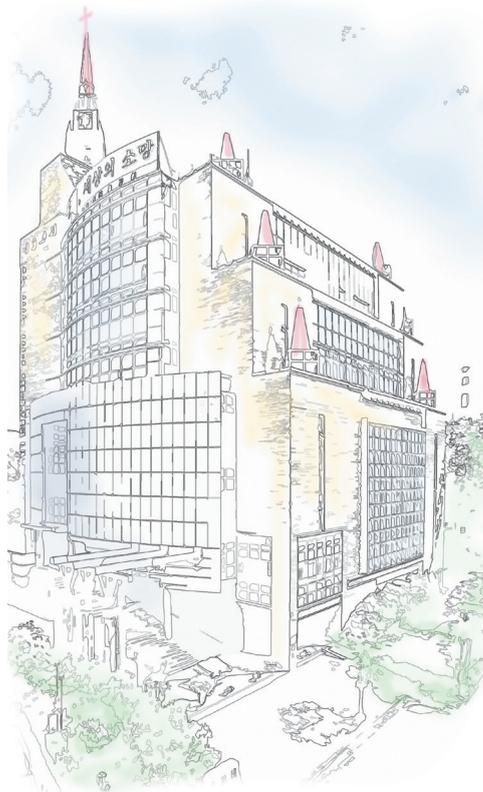
족보장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 이름이 서너 명 나옵니다. 시아 버지와 간통한 다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왜 나와 있을까요? 족보를 만드는 것은 가문을 자랑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유대 나라 전통대로 하면 여자 이름은 족보에 올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족보를 따라서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 세상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에 두 가지 혈통을 만들어 놓은 것은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사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열네 대라고 했을까요. 열네는 일곱의 두 배니까 완전하고 또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진실로’하는 것과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하는 것은 그 강조의 강도가 다릅니다. 다윗이 여기 두 번 겹친 것은 다윗에 대한 강조요 바벨론이 두 번 겹친 것은 바벨론에 대한 강조입니다. 공관복음의 총 주제는 king and kingdom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공관복음서인 것처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진리를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라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 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 앞에 새 생명과 만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죄 사함도 받고, 새 생명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짓된 소망이 도망을 쳤습니다. 초대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형제라 부르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원수와 사단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억울해도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괴롭고 곤고하다고 가슴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악의 세력, 사단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총회임원회,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 2차 행정지시하다

1차 행정지시와 질의회신을 통하여 행정지시 한 바대로
속히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

2차 행정지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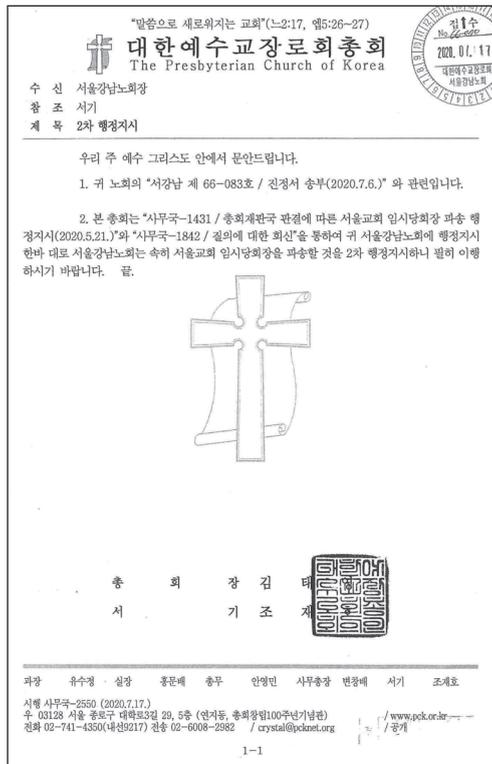
서울강남노회에는 헌법 시행 규정 제88조 제3, 4, 5항에 따른
권징고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단호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총회에 박노철 목사의 출교판결에 따른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서울강남노회에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하였고, 이에 총회가 서울강남노회에 이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위 출교판결이 헌법에 규정된 재판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노회로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줄 것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6월 17일(수) 교단 내부적 권징 및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서의 행정지시는 위 출교판결이 국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당회는 서울강남노회에 총회의 행정지시와 지침회신대로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부득이 7월 3일(금) 다시 총회에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거듭된 행정지시까지 거부하면서 여전히 박노철 목사 비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이유로 총회 권한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진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7일(금) 총회임원회는 다시 서울강남노회에 “앞서 1차 행정지시와 질의회신을 통하여 행정지시 한 바대로 속히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2차 행정지시 하니 필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만일 위 2차 행정지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강남노회에는 헌법 시행규정 제88조 제3, 4, 5항에 따른 권징고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단



호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위 출교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은 지난 7월 23일 재판이 마무리되었고 추가 서면 공방 기회를 거친 후 곧바로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과 총회의 거듭된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필사 양식 다운로드

교회는 현재 선교회, 전도회, 교회학교별로 진행되는 성경필사에 도움을 주고자 성경필사 양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다운로드 버튼 위치는 옆 사진과 같으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상에서 타이핑이 가능하고 프린트해서 직접 필사도 가능하다. 모바일버전, PC버전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더욱 많은 성도들이 성경필사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 하기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http://iseoulchurch.or.kr/>



▲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성경 필사 양식
왼쪽 : 모바일버전, 오른쪽 : PC버전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만구·권성자 조정옥·조정훈 송인현
백도환·석준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증 이어져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기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김광태 집사·최종희 권사 가정에서 '자동 비대면 열화상 카메라 발열 체크기'를, 김규태 집사·박미혜 권사 가정에서는 교회 전면 대형 현수막을 기증하였다.

김광태 집사·최종희 권사 가정에서 기증한 '자동 비대면 열화상 카메라 발열 체크기'는 비대면 자동 체온 감지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얼굴 인식 및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여부를 판정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이나 입에만 걸치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출입을 금지한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0.3초만에 얼굴을 99% 정확하게 판독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출입을 금지한다. 3만 명까지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며 체온 감지 거리는 1m(최적 0.5m)이다. 또한 체온 이상 시 자동경보 지원하고 온도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 성도들은 교회 출입 시 서로 간격을 유지하여 자동발열 체크기를 통과 후 출입하기 바란다.

또한 김규태 집사·박미혜 권사 가정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국가와 교회,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교회 전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교회에 기증하였다. 성도들의 여러 모양의 기증에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에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성경 필사 챌린지



김애리 집사
(한나전도회 부회장)

언제 누가 시작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활절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성경 필사 챌린지'가 SNS에서 시작되어 흘러흘러 서울교회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7월의 비 내리는 오후. 교회의 한 자매로부터 오랜만의 안부와 함께 카톡이 왔습니다. 시편 필사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000집사님(서울교회) 지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편 필사 챌린지에 동참하며 사랑하는 000집사님을 지목합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집사님 필사를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필사한 다음장인 시편 138편을 필사 하시고, 시편 139편 써 주실 세 분을 지목하여 필사가 끊이지 않도록 전해 주시면 됩니다. 기쁜날 되세요. 내일까지입니다.'

받은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연락한 집사님이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표현에는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을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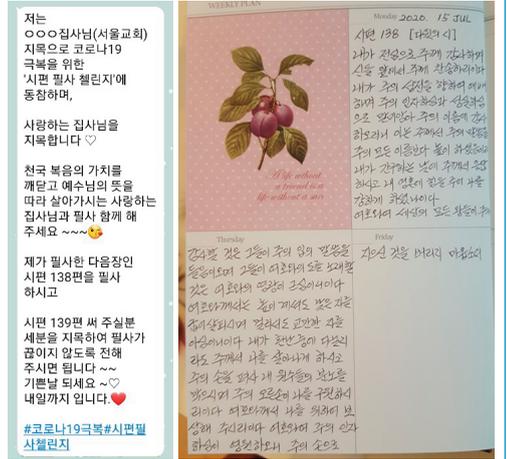
하면서 함께 할 성도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성도와의 교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내 작은 앞치마로 놓치지 않고 받아 내리고 이리저리 뒤고도 지치지 않았던 때가 생각났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거의 졸고 있는 상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사하는 날 서울교회 새벽기도회에서는 아가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내 사랑아, 어여쁜 자야'라 불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 같아 새삼스럽게 설레었고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장기적인 교회 분쟁으로 인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한된 믿음생활 속에서 차츰 영적으로 안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려도 술람미 여인처럼 핑계하며 지체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을 맞이할 등을 들었지만 내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것은 아닌지? 어느덧 몸에 배어버린 나태함이 두렵던 이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내가 회복되고 나아가 온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한나전도회가 먼저 기도와 찬송인 시편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릴레이 필사를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교회 안의 기도 모임, 다락방, 부서



▲ 왼쪽: 성경 필사 챌린지 문자
오른쪽: 성경 필사 인증 샷

별로 필사 챌린지에 동참하여 교회에 말씀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에 성경 필사 챌린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따르는 청년들



하상영 집사
(청년2부 회장)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청년부 회장 하상영 집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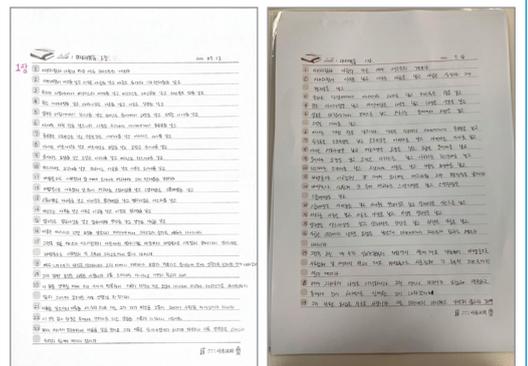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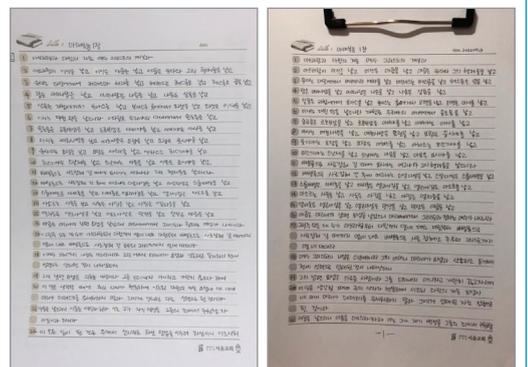
매주 있던 청년부 집회도 없고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즐거운 팀 모임도 없으니 몸이 근질근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원단은 청년부원들의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같은 선한 목표를 향해 팀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자는 필사용 양식을 A4 용지에 인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필사하고, 본인의 필사본 인증사진을 찍어 팀장님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인증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주세요.

· 매일 말 가장 잘 참여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 떨어져 있는 동안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하는 뜨거운 서울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청년부 릴레이 기도문은 4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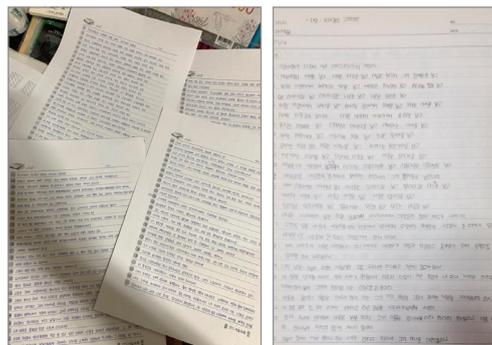
▲▲ 청년부 회원들의 성경필사 인증 샷

1. 팀별 기도 릴레이

매일 팀장님이 지정한 인원이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15분 이상씩 기도를 하고 팀장님이 완료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릴레이 기도문도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2. 성경 필사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정해서 필사하고, 주일날 팀장님이 진행 여부 확인 후 표에 체크



서울교회 청년부 릴레이 기도문

1. 청년부를 위한 기도

서울교회 청년부가 비록 지금은 집회를 가지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
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허락하
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사역자를 위한 기도

-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교역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부 사역
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각 부서의 부장, 부감님 그리고 교사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청년부 지
체들을 사랑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청년부 임원단이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
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오롯이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각 팀을 이끄는 리더들이 매주 팀원들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위로하며 개개인 팀원들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
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서울교회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
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모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며 인내와 연
단의 시간으로 성숙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먼 훗날, 이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
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4. 국가를 위한 기도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
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
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
옵소서.



▲ 온라인으로 실시간 성경 필사중인 청년부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
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
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
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
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
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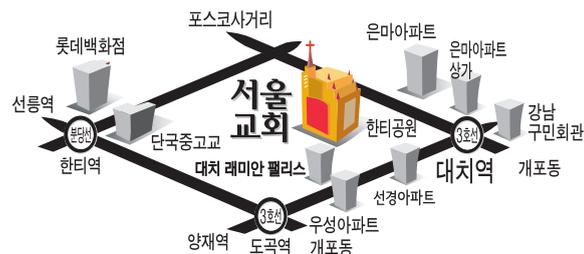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7일	월	사 18-22		신 1-7	
7월28일	화	사 23-27		신 8-14	
7월29일	수	사 28-32		신 15-22	
7월30일	목	사 33-36		신 23-29	
7월31일	금	사 37-40		신 30-34	
8월1일	토	사 41-43		수 1-8	
8월2일	주일	사 44-47		수 9-14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